

[종합·국제]

北 조평통 “南, 제재 가담맨 대가 치를 것”

정부, 국제 공조·PSI 참여 움직임 반발인 듯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조치를 다듬고 있는 한국 정부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미국의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북한까지 ‘으뜸장’을 놓으며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과연 정부가 핵심 고민거리인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조평통이 유엔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25일 담화에서 “남조선이 미국의 반공화국 제재, 압살책동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으로, 동족에 대한 대결선언으로 간주할 것이며 해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한 조치’를 운운하고 있는 이 담화는 시기적으로도 미묘한 상황에서 제기됐다. 대북 포용정책의 상징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사퇴한데다 정부 내에서 ‘국제사회와의 공조’에 무게를 실는 ‘PSI 확대 참여 불가파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 담화에서 “최근 미국이 반공화국 제재봉쇄를 실현해 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때 남조선 당국은 그에 추종하여 우리에게 대한 압살행위에 가담하려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이해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조평통의 이번 담화가 우리 정부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동참수준을 낮추려는 의도와 PSI 참여 확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중에서도 북한이 핵실험 이후 남한 내에서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PSI 참여확대 문제를 주로

거론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말 우리 정부가 PSI에 일체 관여하지 않던 정책을 바꿔 PSI 참여에 대한 미국의 8개 요구 항목 중 ‘옵서버’에게 해당되는 5개 항목에 참여하기로 한 데 대해 조평통이 올 2월9일 담화를 통해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며 반발한 전례가 있어 이 같은 분석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정부 당국은 일단 우려하던 바가 현실로 다가올 것임을 예고했다는 입장이다. 정식 참여를 하더라도 북한과 충돌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은 피할 수 있고 기술적으로 정전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영토보다 넓은 작전해역에서 북한 선박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을 주요 타깃으로 삼은 채 해상에서의 물리력 행사까지도 상정하는 활동에 한국이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갖는 정치적 의미, 또 북한문제 최대 당사자인 한국이 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PSI의 명분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美, 대북정책 ‘투 트랙’ 가닥

(당근·채찍)



부시 “6자 복귀해도 제재” 라이스 “포괄적 정책 있다”

북한의 지난 9일 핵실험 강행 이후 미국 정부 대북정책 기조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조지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25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큰 원칙과 방향을 비교적 소상하게 밝혔다. 대북 문제와 관련한 부시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인 해법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상황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배합하는 이른바 ‘투 트랙’(two track) 정책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우리가 단결할 때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목적을 더 달성할 수 있다”면서 “라이스 보고의 내용은 동맹국들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촉구한 데서 이런 의지가 확연히 나타난다. 말하자면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켜 핵 폐기 모색 노력을 계속하되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 대북 제재와 압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다. 라이스 장관도 이날 헤리티지재단 주최 ‘이빙칼 강좌’ 연설에서 2가지의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하나는 화해의 메시지다. 그는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침공 의사가 없음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의 건설적인 결단을 유도하기 위한 ‘포괄적



정책’(comprehensive policy)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고위 당국자가 지난달 1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의 실체를 확인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또 다른 메시지는 ‘채찍’이다. “북한이 한국의 뒷마당에서 핵장치를 폭발시킨 것에는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를 다짐했다. 아울러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이룰 때까지 제재결의 1718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연합뉴스

불탄 美유엔대사 ‘방한’ 돌연 취소

다음달 초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던 존 불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갑자기 방한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6일 “어제 오후 늦게 불탄 대사측으로부터 방한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는 연락이 왔다”면서 “일정이 연기된 것인지, 취소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라크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관련 일정 때문에 방한이 어려워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대북 강경파인 불탄 대사가 서울을 방문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경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불탄 대사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의 뉴스 전문채널인 폭스 뉴스에 출연, ‘유엔은 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정치적 변화를 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것(정권교체)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에 미국과 우방 국가들이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문 모르는 탈북 어린이들. 지난 24일 방콕의 한 아파트에 숨어있던 탈북한 한인 91명이 26일 태국 교외의 법원에서 밀입국에 따른 재판을 받기 위해 얼굴을 가린 채 버스에서 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北, 플루토늄 최대 50kg 추출”

軍, 핵무기 6~7개 제조 가능

군 당국은 북한이 최대 5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핵탄두 소형화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는 국회 국방위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지난 10월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자료에서

드러났다. 핵무기 1개를 제조하는데 플루토늄 7~8kg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50kg이면 6~7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군은 북한이 러시아산 II(일류신)-28 폭격기를 이용해 핵탄두 소형화 연구를 진행 중이었으며, 장진기지에 IL-28 폭격기 82대가 전개되어 있다는 사실도 보고했다. 북한의 핵실험 의도와 관련, 군은

지난 7월 5일 미사일 발사실패를 만회하는 한편 실질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미국과의 대화체계를 위한 접점을 마련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했다. 군은 북한 핵실험으로 동북아 핵 도미노현상 촉발, 북한의 전략적 주도권 강화로 한반도 안보환경에 근본적인 변화 초래, 남북갈등 가능성 증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본격화 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美, 한국산 공산품·섬유·농산물 관세 철폐”

김중훈 수석 “美산 일부 수입품 ‘관세 철폐 유예’ 고수”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한국산 상품, 농산물, 섬유에 대해 ‘관세 철폐 유예’ 없이 모두 시장을 열겠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반면 우리측은 국내 시장보호를 위해 미국에서 수입되는 공산품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유예’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중훈 수석대표는 26일 “미국은 처음부터 (상품, 농산물, 섬유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산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예외없이 철폐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우리측은 예외(관세철폐 유예)를 두겠다는 방침이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따라서 미국은 지금까지 관세철폐 시기를 밝히지 않은 물품에 대해 한미 FTA 협상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철폐 시기를 밝힌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산 공산품과 농산물, 섬유 등 모든 물품에 대해 예외없이 완전하게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는 ‘즉시-3년-5년-10년-기타’, 농산물에는 ‘즉시-2년-5년-7년-10년’, 섬유에는 ‘즉시-3년-5년-10년-기타’로 한 관세 철폐 이행계획을 우리측에 전달했다. 이혜민 수석대표는 “미국은 협상에서 ‘관세철폐 유예’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이 단장은 전했다. /연합뉴스

년-5년-10년-기타’ 등 5단계로 분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당시 우리측은 ‘기타’의 의미를 정하면서 기타에 ‘관세철폐 유예’ 품목을 넣겠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기타’에 관세철폐 유예를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며 한국산 공산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모두 제거해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이 단장은 전했다. /연합뉴스

‘이어도’ 수중 암초에 우리식 지명 붙인다

정부가 이어도 근처 바닷속 수중 암초에 우리식 지명을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바다로 1호’가 다중범용항측심기와 천부지층탐사기 등으로 조사한 결과 이어도 북동쪽 4.5km 지점에서 길이 372m, 폭 169m, 면적 5만2천800㎡ 크기의 수중 암초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

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어도 주변 해역을 더 정밀하게 조사하고, 발견된 수중 암초에 대해서는 해양지명위원회를 통해 해당지명 부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지난 99년, 2001년, 2002년에 걸쳐 이 암초를 조사한 뒤 임시로 ‘딩샹(丁岬)’이라는 이름까지 붙여둔 상태다. /연합뉴스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연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우레텍공법은 핀란드에서 개발한 국제특허공법으로 30년된 기술의 노하우!

피사의 사탑을 똑바로 세울 수 있을까?
이전 우레텍공법으로 가능합니다.

우레텍 공법의 특징

- 지내력500%까지 증강복원
- 작업공정 최단시간(수시간에서 수일)
- 기존시설물 이동없이 생활불편 최소화
- 물질 보증기간 10년

우레텍 공법의 적용분야

- 건축주거, 업무시설분야: 주택, 상가, 공동주택, 문화재, 성(城), 교건축 등 기초, 기둥, 바닥레벨, 침하복원 및 강화
- 건축산업시설분야: 공장바닥, 각종 물·유류탱크, 마트, 사일로, 대형매장, 대형물류 창고 등 침하복원 및 강화
- 토목시설분야: 고속도로, 공항활주로, 철도, 교량, 항만, 지하철, 댐, 공공 시설물 등 침하복원 및 강화
- 수수분야(공통): 지하공동구, 배관슬리브, 지하철, 터널, 댐, 농수로, 각종매물, 하수구 등 지수

우레텍코리아 광주·전남지사 통진엔지니어링(주)가 하는 일 :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일반건설업, 구조조도, 지질조사

통진엔지니어링(주)는 기초가 튼튼한 회사입니다

자세한 안내 및 문의 : ☎ 062-571-3001, 2 • FAX: 0551 • HP: 011-604-0287 • http://www.tongjin96.co.kr

서울본원 1차 최종합격생 123명

KPA회원 2006년2차 필기합격자 총 319명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랑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1일·15일 개강 (수시접수)

- 6개월회원제 / 1년 회원제
오전이론+저녁이론강의+오후실전문제풀이+기초영어 모두 수강 가능
- 2개월 종합반-오전이론+저녁이론 강의+기초영어 수강
 - 1개월 무료 동영상제공(회원제)
 - 정독사실, 고시원 할인 혜택
 - 매주 토요일 기초영어특강 수강
 - 매일 실전문제고사 실시(OMR카드 성적처리-개인성적표 제공)
 - 전문자습실 사용 가능
 - 시험합 무료사용 가능
 - 심화된 선별 맞춤 수강
 - 매일 실전문제고사 실시(OMR카드 성적처리-개인성적표 제공)

*** 차별화된 전문 교수진**

경찰학개론 김재규 교수	형법 조태업 교수	형사소송법 윤경근 교수
수사 오수평 교수	영어 오순아 교수	영어 김지선 교수

www.police3112.net

공무원 아간반 첫진도

공무원 이론반 첫진도 개강 11월1일

★ 행정/사무/교육행정/검찰/교정직 -주/야간반 운영★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 222-4560

상위권 대학면접 전문 - 김영

호남유일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대비 강좌
MEET/DEET 대비반 개강

일반, 학사, 사대면접
편입대비 영어 기초반

약대, 한의대면접
생물, 화학, 한문, 한의학

교육대편입대비 - 김윤신 교육학

김영대학면접학원 광주동부경찰서 개강11월1일 ☎ 227-8088